

칼빈主義의 禮拜의 原理

鄭 聖 久

<실천신학>

모든 종교에는 예배가 있다. 기독교도 예배의 종교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예배는 다른 종교의 예배행위와 같은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며, 성경의 啓示에 기초한 예배이다.¹⁾ 그러나, 타종교의 예배는 인간의 편의와 욕구충족을 위해서 행하여지는 예배이다. 이미 창세기에 아담과 아벨의 제사에서 참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 사이의 분기점을 제시하여 준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시한대로 속죄의 제물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한 예배인가 아니면 인간의 자기방식과 생각대로의 예배인가는 인류역사가 두고 두고 논쟁점이 되어 왔다. 다시 말하면, <人本主義의 禮拜>냐 아니면 <神本主義의 禮拜>냐의 갈림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된 신앙을 지키는 일이며, 진정한 성경적 기독교를 지키는 일이 된다. 그렇다면 기독교회라고 하더라도 참으로 성경에 합당한 예배정신과 예배방법인가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여기에 神學의 갈림길이 있고 예배신학²⁾(禮拜神學, Theologia Liturgica)의 토론이 있게 된다.

1) Ralph G. Turnbull, *Baker's Dictionary of Practical Theology* (Michigan, Baker book House, 1976), p. 364.

2) 禮拜神學(Theologia Liturgica)은 두말할 필요없이 예배에 대한 신학적 접근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이것을 다시 세분하면 첫째로 예배의 역사(de geschiedenis der Liturgie), 둘째는 예배의 기술과 예술(Liturgische techniek, Kunst),

오늘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예배는 단순히 로마 카톨릭의 미사의 수정이나 갱신이 아니다. 개혁교회의 예배는 멀리는 구약과 신약, 회당과 초대교회 등의 배경을 가지며, 가까이는 宗教改革이라는 역사적 사건 위에서 그 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종교개혁은 바로 禮拜의 改革(Liturgica Reform)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그 당시의 예배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서, 잃었던 講壇을 다시 회복한 데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개혁교회의 예배원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사실 오늘날의 교회는 예배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다. 장로교회도 오순절교회 같고, 감리교회도 장로교회 같은 현상이다. 이런 것은 오늘의 교회들이 지나치게 교회성장과 숫자적 부흥을 추구하다 보니, 편의에 의해서 또는 대중들의 취향에 맞게 실용적으로 예배하게 됐다. 이것은 예배신학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것이다.

이 소론에서는 장로교회로서 칼빈주의적입장에서의 예배의 원리와 성격이 무엇인가³⁾를 다루는 것으로 제한하려고 한다. 이런 시도

세제는 예배의 神學(Liturgische Theologie)으로서 敎義學의 기초가 되는 여러 분야와 예배와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신학적 이해를 한다. 예배신학에서 특별히 다루는 문제들은 예배의 禮典의 성격, 세례, 죄의 고백, 신앙고백, 설교, 기도 성만찬 등을 다루게 된다. Cf. Prof. Dr. G. Van der Leeuw, *Inleiding tot De Theologie* (Amsterdam, H. J. Paris, 1935), pp. 210—211. 또한 Carl Kromminga의 *The Church's Public Worship of God*(교안)참고.

3) 칼빈주의적 예배원리를 연구하기 위한 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Battles, F. L., *The Piety of Calvin* (Eerdman) Chambers, C. H., *Important Aspects of Reformed Church Worship*. Cyprus, *Public Worship in Calvin*. Maxwell, W. D., *The Liturgical Portions of the Genevan Service*. Nichols, J. H., *The Essentials of the Reformed Service*. Nichols, J. H., *The Liturgical Tradition of the Reformed Churches*. 등이다. 그리고 최근에 출판된 Ralph P. Martin의 *The Worship of God* (Eerdman, 1982)은 神學的 또는 牧會의인 실체론 논한 책이 있다. 그리고 논문들도 여러 편 있으나 몇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George Johnson, "Calvinism and Worship" *Evangelical Quarterly*, Vol. V(1932), pp. 377—390. Allen, Horace T., "Catching up to Calvin: Liturgical developments among Presbyterians," *Worship*, Vol. 48(1974), pp. 580—594. Briner, L. A., "Common Worship in the Reformed Tradition" *McCQ* Vol. 14(Jan. 1961), pp. 26—33.

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1. 韓國教會 禮拜의 反省과 最近의 動向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서는 實踐神學에 대한 학문적인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설립 100주년을 전후해서 지금까지의 한국교회의 神學과 信仰의 문제들을 반성하고 재조명하는 일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도 때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한국교회의 예배문제를 검토, 비판하고 여기에 대한 방향모색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 1979년에 鄭容燮 박사는 教會更新의 첫과제로서 禮拜更新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⁴⁾ 그는 말하기를 “예배의 갱신은 오늘 우리교회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이다. 오늘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 온 ‘갱신’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혁신이나 쇄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자체가 순수하게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란돌프(Davis J. Randolph)의 말을 인용하였다.⁵⁾

그는 몇가지로 예배 갱신의 문제를 제기한 셈인데 첫째는 프로테스탄트가 지나치게 말씀 중심 즉, 설교 중심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교가 제구실을 못할 때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설교와 성체전의 균형을 이루는 예배갱신을 말했다. 그리고 둘째는, 예배의 갱신의 필요성이 경건주의 영향 아래 프로테스탄트의 예배가 지배해온 확대된 개인주의를 문제삼고 있다.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예배를 강조한 셈이다. 셋째는, 예배갱신은 부흥회와 함께 동반해 오는 감상주의 내지는 주정주의(主情主義)의 경향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청된다는 것이다. 열광주의와 무절제한 것을 문제 삼고, 오늘의 한국교회 안에서 의 야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⁶⁾

그 후 이와 유사한 한국교회 예배에 대한 자기 반성들이 있었다.

즉, 정장복 박사는 100년 전에 이 땅에 전하여 준 선교사들의 예배 방식이나 순서가 수정이나 보완이 없이 답습하는 것을 문제 삼고 예배신학을 수립하여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책임도 없음을 개탄하였다.” 그리고 최근, 月刊 牧會의 부록에 발표한 蘇義洙 박사의 “한국장로교회의 예배갱신 원리와 실제 연구 논문은 한국교회의 예배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좋은 작품이었다.” 그는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내용으로 말했다. 즉, 한국교회에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들이 20대 뜻내기들었기에 전통적 기독교 신앙과 전승에 어두웠다는 것이며, 그들이 전해준 예배형식은 미국의 자유교회(Free Church)에서 배워온 그대로라는 것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를 전해준 것이 아니라 청교도적인 예배를 전승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의 후예들이나 미국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예배는 매마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선교사들이 전해준 한국교회가 전승한 예배도 매마른 예배라고 주장했다.⁷⁾ 그러나 이 매마르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적 또는 한국적 예배가 장엄미나 격식이 부족함을 말하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는 한국교회의 예배의 구체적 사례연구를 한 뒤에 예배에 대한 갱신의 실제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했다. 즉, ① 예배에 대한 바른 인식 ② 예배신학의 확립 ③ 개인주의 극복 ④ 축제의 의미 회복 ⑤ 주정주의와 감상주의 극복 ⑥ 말씀과 성만찬의 균형 예배의 회복 ⑦ 샤머니즘과 이교적인 요소 극복 ⑧ 교회력과 성서일에 대한 이해와 도입 등을 지적하고 예배와 생활의 조화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앞서의 정용섭 박사의 입장과 다를 바가 없으나, 한국교회의 예배 문제를 실제적으로 분석하고 예배신학의 수립을 위한 노력을 읽을 수 있다. 한편 梁承達 목사의 “改革派教會 禮拜의 本質의 要素”란 논문에서⁸⁾ 예배의 본질적 요소인 설교와 기도 그리고 성례전

4) 鄭容燮, 教會更新의 神學, (KCLS, 1979), p.15f.

5) *Ibid.*, p.22. 무엇을 어떻게 갱신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필자가 쓰는 改革이란 의미와는 다르다. 更新(renewal)은 단순히 새물계 교치는 정도라면 改革은 성경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으로 쓰려고 한다.

6) *Ibid.*, pp.16-21.

7) 정장복, “예배를 다시 생각해 본다”, 목회자를 위한 10차 전문과정 강의 안(1981).

8) 月刊 牧會, (1987.1月号), p.273f.

9) *Ibid.*, p.275.

10) 改革神學, 第四輯, (大韓예수교長老會 神學校 1978), p.112f.

과 헌금을 중심으로 한 칼빈의 입장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승미 박사도 “개혁주의 예배원리”란 작은 글에서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¹¹⁾

어쨌든, 위에서 언급한 학자들의 최근의 노력들은 한국교회의 예배 문제를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며, 예배에 대한 더 넓은 토론의 광장으로 이끌어온 셈이다.

2. 칼빈주의적 禮拜의 理解

예배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으로 경배하며, 공동으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¹²⁾ 또는 예배는 영원자에 대한 피조자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¹³⁾ 또 미국의 유명한 대설교가인 존 맥카드(John MacArthur)는 말하기를 “예배는 최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경이이다. 그것은 최상의 존재에게 존경, 경의, 찬양,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경의와 존경을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주일에 함께 모이는 이유이다. —설교와 음악은 우리 마음 속에 그를 존경하려는 바람을 낳는 자극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¹⁴⁾

그래서 결국 일반적 의미에서의 예배란 敬拜로서의 禮拜, 말씀선포로서의 禮拜, 헌신으로서의 禮拜, 교제로서의 예배, 새롭게 되는 예배, 問題를 드림으로서의 예배, 생활로서의 예배를 지적하게 된다.¹⁵⁾ 예배에 대한 바른 인식은 사람의 첫째 의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으며,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예배를 받으시며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총의 제시가 창조와 구속의 역사 속에 나타났기에 거기에 대한 응답적 행위로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¹⁶⁾ 따라서 예배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것과 거기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서 대화와 만남으로 이해되어진다.¹⁷⁾

그런데, 칼빈주의적 입장에서 예배의 이해는 위의 것들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칼빈주의적 입장에서 예배는 다음과 같은 강조점이 있을 수 있겠다. 우선 칼빈주의자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성에서 예배의 의미를 찾고 있다. 칼빈은 인간에게는 神意識(Sense of Divinity) 있는데, 이것이 宗教의 씨앗(Seed of Religion)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예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¹⁸⁾ 칼빈주의적 예배 또는 개혁파 교회의 예배 이해는 우선 1542년에 나온 칼빈의 ‘교회기도의 본’과 1644년의 ‘공예배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규칙서’가 그 기초가 되는 것이다.¹⁹⁾ 결국 칼빈주의적 예배 이해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교회가 축복받음으로써 하나님과 공동체로서의 그의 백성이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²⁰⁾

a) 그러므로 예배는 만남이다(Worship is meeting).

예배는 개인적이고 정신적인 활동의 영역도 아니고 명상도 아니다. 명상은 매우 고상한 종교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예배는 그러한 종교적 명상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이룩하신 신비스런 구속을 통해서 인간과 만나도록 하신 것이다.²¹⁾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예배를 가리켜서 “화목된 공동체로서 하나님과의 만남”

11) 李根三 外, 칼빈주의 특성과 강조점, (연마오, 1986), p. 59f.

12) *Op. cit.*, A Dictionary of Practical Theology, p. 364.

13) Evelyn Underwil, *Worship*, p. 3.

14) John MacArthur, Jr., *True Worship*, 참된 예배, 한화통 옮김, (두란노서원, 1986), p. 10.

15) 金東鍊, “教會와 禮拜” 教會와 神學, 第一輯(長老會神學大學, 1965), p. 117f.

16) *Op. cit.*, 蘇義洙, p. 309. Robert N. Schaper의 재인용,

17) *Op. cit.*, Dictionary of Practical Theology, p. 365f.

18)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I : 3 : 3.

19) James A. De Jong, *Perspective on Reformed Worship*(Grand Rapid, CRC Pub. 1985), p. 13.

“Calvin's The Form of Church Prayers”과 “Westminster Directory of Public Worship”.

20) *Ibid.*

21) *Ibid.*, p. 14.

(Saamkomen met God als Verzoende Gemeente)이란 말로 표현했다.²²⁾

b) 예배는 집단적 만남이다(Worship is a corporate meeting)

개인적이고 은밀하고 경건한 경험들도 일종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예배일 수는 없다. 예배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는 예배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헌신, 몇몇 친구들끼리의 헌신, 또는 경험이나 간증을 나누는 것 등은 집단적 예배일 수는 없다.²³⁾

c) 예배는 규칙을 따라서 하는 집단적 만남이다(Worship is a prescribed, corporate meeting)²⁴⁾

여기서 규칙에 따른다는 것은 무슨 시간이나 장소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일정한 질서와 규범을 좇아서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배의 질서를 이른바 예배의식(Liturgy)이라고 부른다. 예배의식은 마치 비유컨대 요리법(a Recipe)과 같다고나 할까. 좋은 요리사는 좋은 요리법을 갖고 있듯이 모든 교회들은 자신들의 예배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예배의식은 예배를 도와 주는 것 뿐이고 예배의식이 예배의 전부는 아닌 것이다. 그래서 개혁교회 또는 장로교회는 그 나름대로의 예배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예배의식은 예배를 좀 더 바르게 하기 위한 조력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식(Liturgy)과 예배(Worship)는 구별되어야 하나, 그 둘은 서로 나눌 수는 없는 것이다.²⁵⁾

d)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일어나는 규칙적이고 집단적인 만남이다(Worship is a prescribed, corporate meeting between God and his people).

22) A. Kuyper, *Onze Eeredienst*(Kampen: J.H. Kok, 1911), p. 21. J. Calvin과 A. Kuyper에게 있어서는 설교도 만남이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23) J. de Jong, *op. cit.*, p. 14.

24) *Ibid.*

25) *Ibid.*, "It may even help improve the Liturgy for the sake of better worship. While Liturgy and Worship are distinguishable, they are never separable."

가끔 예배란 말을 대화(Dialogue)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예배 순서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서도 있고, 회중들이 응답하는 순서가 있어서 예배를 대화로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예배가 대화란 말은 불완전하기 짝이 없다. 왜냐하면 대화란 동격(equals)인 상태에서의 행위이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Divine invitation)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드리는 것이다. 대화는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지껄리는 것이지만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규칙을 따라서 만나는 것이어야 한다.²⁶⁾

e)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면서 의 만남이다(Worship is a meeting in which God is praised).

찬양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필수적 내용이다. 시편에서는 예배의 성격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단어를 찬양이란 말을 쓰고 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예배의 특징을 짓는 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는 예배자가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으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이다.²⁷⁾

f) 예배는 축복받은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다(Worship is a meeting in which the church is blessed).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뿐 아니라 받기도 한다.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한 결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받는 축복의 원천이다. 예배 시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이다. 예배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배반 정도 청중들에게 선포된다. 첫째는 예배가 시작될 때 성도들에게 문안의 말씀(The word of greeting)이 되겠고, 둘째는 죄의 고백에 따른 용서의 말씀(The word of forgiveness)이다. 그리고 셋째는, 설교시간에 성도들을 위로하며 감화하며, 깨닫도록 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교훈의 말씀(The

26) *Ibid.*, pp. 14-15.

27) *Ibid.*, p. 16.

word of Instruction)이다. 배제는, 한 주간 동안 승리의 생활을 하도록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는 축복의 말씀(The word of benediction)이다.²⁸⁾ 위와 같은 요소들은 칼빈주의적 교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예배의 한 모습일 것이다.

3. 칼빈주의적 禮拜의 特性

사실 예배를 논할 때, 반드시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²⁹⁾ 더구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예배란 제복으로 별도로 취급한 章도 없다.³⁰⁾ 그러나 요한 칼빈 이후 모든 개혁교회가 지켜온 예배의식도 있고, 또 예배에 대한 확실한 특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장에서 칼빈주의적인 입장에서의 예배의 신학이 무엇이며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칼빈주의적 입장에서 예배를 논한다는 것은 반드시 칼빈의 입장만을 따른다거나 칼빈주의적 입장에 있는 교회들의 전승만을 따른다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제임스 더 용(James De Jong) 박사의 지적처럼 개혁교회의 예배의 뿌리는 멀리 보면 구약과 신약 그리고 초대교회와 종교개혁까지 연결된 하나의 흐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³¹⁾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로 다음으로 미루고 여기

서는 칼빈의 입장과 칼빈주의적 예배의 특성만을 논하기로 한다. 어쨌거나 칼빈이 당시 예배에 대한 입장과 그의 주일 예배 형식이 후일 개혁주의 예배의 표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³²⁾

우선 칼빈의 基督教講要에 나타난 예배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칼빈은 예배에 대해서 성경적인 것과 신학적인 것에 성실하려고 한다. 우선 그는 교회의 모든 실제적인 것들이 철저히 성경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³³⁾ “성경이 명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칼빈의 입장이다.”³⁴⁾ 칼빈은 신학적인 의미 부여를 하는 모든 문제들이 언제나 성경 원리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모든 참된 예배는 사람들의 욕망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에 근거해야 할 것을 말했다.³⁵⁾

둘째로, 칼빈은 예배의 원리가 신학적으로 명백하다. 예배는 확실히 해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예배에 있어서 감정적 요소를 부인하지 않았다. 신앙에서와 같이 예배란 全人格의인 행동이라고 하였다.³⁶⁾ 그러므로 칼빈주의적 예배의 특징은 잘 이해되어진 예배여야 할 것을 주장한다.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말

배로 변했고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서 공예배에 대한 원리로서 십계명의 첫째 돌비를 받게 된다. 제일계명은 예배를 받으실 분에 대해서 제2계명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제3계명은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제4계명은 예배의 시기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신약의 예배형태가 會堂(Synagogue)에서 유래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므로, 신약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새로 개혁한 예배의 형태였음을 생각해야 한다. pp.21-28.

32) S.F. Brenner, *The Sacraments, The Way of Worship, A Study in Ecumenical Recovery*,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44), p. 75.

33) John H. Leith, *op. cit.*, p. 175.

34) “Form of Administering Baptism” in *Tracts and Treatises on the Doctrine and Worship of the Church*, Thomas F. Torrance, ed. trans, Henry Beveridge(Grand Rapids; Eerdmans, 1958), 2:118.

35) John H. Leith, *op. cit.*, p. 175. cf. *Institutes*, III, xx, 29, N, xii, 43, N, x, 30.

36) Joannis Calvini, *Opera Selecta*, P. Barth, Guilemus Baum, and Dora Scheumes, eds. (Munich: Chr. Kaises, 1952), 2:15.

28) *Ibid.*

29) John H. Leith,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A way of Being the Christian Community*(Atlanta: John Knox Press, 1981) p. 175.

30) *John Calvin's Institutes*. His Opus Magnum Proceeding of the Second South African Congress for Calvin Research July 31-August 3, 1984, Potchefstroom University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Potchefstroom, 1986), p. 241. 특히 12장은 불란서 스타타스럼 신학부 교수인 R. Peter의 기독교강요에 있어서의 칼빈과 예배의식(Liturgy)이란 논문이다. 1984년 남아연방의 포츠제트룸 대학부설기관이 칼빈연구소 주최로 열린 콘퍼런스의 자료로 제출된 것이다.

31) J. de Jong, *op. cit.*, p. 21f.

구약시대에는 처음에 예배는 가정에서였다. 그리고 다시 족장 중심의 예

하면서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말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어지럽히는 꼴이 된다”고 하였다.³⁷⁾

세째로, 칼빈에게 있어서 예배신학은 교훈적이다. 예배의식이 교훈적인 것에 기초하고 있다.³⁸⁾

네째로, 칼빈에게 있어서 예배는 단순성(simplicity)에 있다. 특히 칼빈은 성만찬에 있어서 요란한 의식이나 성명 없는 의식을 반대했다. 칼빈은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싫어했다.³⁹⁾ 이상에서 본바와 마찬가지로 칼빈의 예배에 대한 태도는 성경 중심으로 보면서 명료성과 단순성, 그리고 교훈적인 것을 원리로 삼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브린너(Lewis Andrew Briner) 같은 이는 칼빈주의적 예배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맞으로 구분했다. 첫째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강조한다. 둘째는, 칼빈주의적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이는 일이다. 그리고 세째는, 예배순서의 단순화이다. 그리고 네번째는 공동체로서의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했다.⁴⁰⁾

그리고 바스트(Davis Bast) 같은 이는 칼빈의 예배신학(Calvin's Theology of Worship)의 특징은 역시 萬人司祭職論(The doctrine of priesthood of all believers)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하였다.⁴¹⁾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궤를 다함을 얻었음으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특별히 칼빈주의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강하게 인식하는 일이다. 위에 열거한 칼빈 또는 칼빈주의의 예배의 특성들은 하나님 편에서 예배자를 향해 오심의 원리가 강조되고 그 후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배자 편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37) *Institutes*, III, xx, 33.

38) *Opera Selecta*, 2:15.

39) *Institutes*, IV, xv, 19. IV, xvii, 43. IV, x, 14. III, xx, 30.

40) Briner, Lewis Andrew, "Common Worship in the Reformed Tradition," *McCQ* 14(Jan. 1961), pp. 26-33. Briner는 미국 연합장로교회의 기독교 교육 훈련원의 총무를 지냈으며, 이 연설은 1960년 3월에 있는 교회적분자 훈련 세미나의 강연이었다.

41) David Bast, *An Analysis of Liturgy of the RCA* (Grand Rapids, 1979), p. 15. 이 자르는 비인쇄된 것이며, 칼빈신학교에서 배틀(F. L. Battles)박사에게 제출된 레포트이다.

에게로 인도되는 원리가 예배의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⁴²⁾

4. 칼빈주의적 禮拜의 강조점

예배에 있어서 칼빈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업위로우심을 높이는 일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은 그의 義에 기초를 둔 것이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담으로서의 예배이다.⁴³⁾ 그런데 칼빈의 예배에 있어서 강조점은 달리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의 요구에 대해서 인간 편에서의 순종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⁴⁴⁾ 그러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응담하는 예배의 불가결의 요소는 어떤 것인가?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교회의 어떤 집회도 말씀의 설교와 기도 聖晩餐의 집행, 헌금의 봉헌 없이는 열릴 수 없다”고 하였다.⁴⁵⁾

그렇다면 칼빈주의적 예배의 강조점을 다음 몇 가지로 분류하여 생각해 보자.

①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서의 說教가 예배의 중심이다. 칼빈의 예배의 최대의 강조점은 말씀 전파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개혁자들이 가장 강조하던 내용이다.⁴⁶⁾ 실제로 종교개혁은 다른 말로 한다면 설교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개혁이 성경에 대한 재발견이었다면 이 성경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운동은 강단을 통한 말씀 전파에서 시작되었다. 실제로 개혁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감당했다.

42) 이 근삼의, 칼빈주의 특성과 강조점(엠마오, 1689), p. 61.

43) Chambers, Calvin H., "In Spirit an in truth Charismatic Worship and the Reformed Tradition" (Ardmore, Pa.: Dorrance & Company, 1980), p. 34f. 또한 "Calvin's The Institutes," Book II, p. 377.

44) *Calvin and Worship*, *Reformed Herald*, Vol. 28(1972-1973), p. 35.

45) John Calvin, *Institutes*, Books IV, XV, ii, 44. R. Peter "Calvin and Liturgy, According to the Institutes"에서 이것을 칼빈의 예배의식의 四大要素라고 지적했다. *Op. cit.*, *His Opus Magnum*, p. 246.

46) John H. Bratt, ed., *The Heritage of John Calvin* (Grand Rapids: Eerdmans Co., 1973), p. 88.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방은 주일날에는 두 번 또는 세 번의 설교가 있었으며 주간에도 여러 차례의 설교가 있었다. 어떤 때는 설교자들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설교하기도 했다.⁴⁷⁾ 설교의 시간이나 회수는 대개가 회중의 요구에 따랐으며 제비바에서는 세 교구로 나누어져 매주 열다섯 번의 예배와 설교가 행하여졌다. 사실 당시의 설교의 원고들을 살펴보면 설교가 꽤 길었다는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증을 느끼던 그 당시로서는 긴 것은 아니었다.

종교개혁 당시의 말씀(word)에 대한 의미는 기록된 말씀(written word)과 선포된 말씀(preached word)을 모두 포함하였다. 그때의 말씀 전파의 불길은 성경의 재발견과 때를 맞추어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성경에 대한 새로운 번역의 시도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말씀 증거의 운동은 더욱 활발하게 되었다.⁴⁸⁾ 사실 중세시대는 성경을 단편적 인용으로 겨우 알려졌으나 종교개혁 후부터 성경에 대한 놀라움과 뜨거움으로 대하였다. 그래서 전파된 말씀은 성경과 거의 동일시 되었음으로 개혁교회에서는 성경을 읽는 것과 설교는 포괄적인 의미로서 “말씀”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성경에 충실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성경을 잘 해석하는 데서 출발했다. 그래서 개혁파적 설교는 강해설교(expository preaching)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이것은 달리 말하면 케리그마적 설교(Kerygmatic preaching)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⁹⁾

개혁자들은 성경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約束을 제시하려고 힘썼다. 개혁자들에 있어서는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식이었다. 성경 봉독 다음에는 바로 설교를 했으며 찬송과 기도를 함께

47) 특히 칼빈의 경우는 주일날 2회 또는 3회 평일에도 3-4회의 설교를 했었다. 그러므로 J. Douma는 칼빈을 가르쳐서 “말씀의 중으로서 칼빈”(Calvin als Bedienaar Des Woords)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다. *Johannes Calvin, Preeken Het Gepredikte Woord Vertaald door Ds. J. Douma en Ds. W. H. V. d. Vegt, Deel I.* (T. Weves, N. V. Franeker, 1951), p. 1.

48) John Bratt, *op. cit.*, p. 89.

49) *Ibid.*, p. 90.

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장로교회의 예배의식의 주축을 이루었을 것이다.

신약시대의 예배가 희생의 예배(worship of sacrifice)의 형태가 아니고 말씀 중심의 예배(worship of word)라면 칼빈주의적 예배는 설교 중심의 설교를 재건(Re-establish worshipping by preaching)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⁰⁾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이해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道具로 인식했다. 그래서 루터는 설교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고백하면서 “내가 설교하기 위하여 강단에 오를 때나, 성경을 봉독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을 때 그때는 이미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혀는 이미 쓰신 분(하나님)의 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⁵¹⁾ 또 칼빈의 말을 인용하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설교의 말씀 선포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청중에 꼭 같이 일한다”고 하였다.⁵²⁾

어쨌든 이미 보아온 대로 칼빈주의적 예배의 핵심은 두말할 필요없이 말씀 중심의 강조(A central emphasis on the word)를 내세우게 된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 선포 없이는 성찬도 사실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칼빈은 루터처럼 “말씀과 신앙이 상관관계가 있다”(Word and Faith are correlatives)고 보고 성만찬까지도 결국 “말씀의 표”(sigilla verbi)로서 이해하였다.⁵³⁾ 칼빈주의자들의 예배의 원리로서 설교들 가운데 든 것은 성경 외의 것에다 무엇을 첨가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칼빈주의자들이 생각한 설교란 마치 예술가가 음악작품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였다. 쓰여진 작품은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연주해서 그 작품의 내용

50) George Johnson, “Calvinism and Worship” *Evangelical Quarterly*, Vol. IV (1932), pp. 380-381. Johnson은 초기에는 말씀 중심의 설교였는데, 점차로 중세에 들어오자 성찬 중심의 예배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설교 중심의 예배는 신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공중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

51) T. H. L. Parker, *The Oracles of God* (London: Luttworth Press, 1974), p. 47.

52) John Bratt, *op. cit.*, p. 91.

53) Briner, *op. cit.*, p. 27. 즉 “If the sacraments are separated from the word, they lose their nature,” Tract II, p. 344.

대로그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교라고 인식했다. 즉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 주는 길은 설교를 통해서 된다는 것이다.⁵⁴⁾ 그래서 설교 중심의 예배는 단순성을 요구하면서 그 말씀 증거를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게 된다.⁵⁵⁾ 그러므로 칼빈주의적 예배에 있어서는 말씀선포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②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임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은 일차적으로 예배에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다.⁵⁶⁾ 칼빈은 인간의 열망과 욕구충족에서 종교를 끌어내는 것을 거절하였다. 칼빈은 사도레(Cardinal Sadolet)에게 한 대답 중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본질인 열망이 없이 인간 자신을 나타내고, 인간의 사상을 높이는 것에 한정한다면 이런 신앙은 거짓된 신학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난 것이지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⁵⁷⁾ 바로 이러한 원리들은 칼빈의 예배의 원리에도 적용되어진다. 칼빈은 십계명을 가르치는 서언에서도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주권을 이해하는 배서 시작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⁵⁸⁾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강조하는 원리는 가건적 교회(visible church)나 불가견적 교회(invisible church)나를 막론하고 다함께 적용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원리에 순종해야 하며 예배의 원리도 일차적으로 그 의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나 아니나를 물어야 할 것이다. 예배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에 대한 고백과 순종으로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 대한 모든 참된 지식은 순종에서부터 오는

54) Johnson, *op. cit.*, p. 384f.

55) *Ibid.*, p. 386. 이상에서의 Calvin의 주장들은 *Institutes*, IV, iii, 1., V, viii, 2., III, ii, 2. I, xiv, 4., II, viii, 46., V, viii, 8 등을 참고할 것.

56) Briner, *op. cit.*, p. 27.

57) *Calvini Opera*, V, p. 391.

58) *Ibid.*, Opera, II, p. 54.

것”이다.⁵⁹⁾ 그러므로 칼빈주의적 예배에 있어서 기도와 찬송도 하나님께 대한 영광 개념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

③ 세례는 예배순서의 단순성이다.

로마 카톨릭의 미사(mass)와 비교해 볼 때 칼빈의 예배의식은 매우 단순하다. 특히 예배의 순서를 숫자적으로 단순화시켰다. 칼빈주의적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찬송과 기도이다. 그런데 이 둘을 하나로 보았다. 왜냐하면 찬송은 기도의 노래형태(Hymns were a song form of prayer)로 보았다.⁶⁰⁾ 그리고 찬양도 주로 시편에다 곡을 부친 것을 사용했다.⁶¹⁾ 칼빈은 쾅글리와(Zwingli)는 달리 음악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첫번째 선물”(first gift God to church)로 이해하였다.⁶²⁾ 그리고 시편찬송을 “종교의 중요한 요절”으로 말하기로 했다.⁶³⁾ 특히 예배음악은 “더 열렬하고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움직이고 작용할 수 있는 위대한 힘과 능력을 가졌다”고 칼빈은 말하였다.⁶⁴⁾ 물론 기도도 성경봉독 이후에 기도하거나 설교 이후에 기도하기도 했으나 카톨릭의 미사처럼 복잡성을 띠지는 아니했다. 어쨌거나 칼빈 또는 칼빈주의자들이 예배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에 초점을 맞추며 인위적인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기에 그 예배의 순서는 단순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59) *Ibid.*, “Omnis Recta dei cognitio ab obedientia nascitur.”

60) C. H. Chambers, *op. cit.*, p. 38.

61) 종교 개혁 이후에 교회음악에는 두 가지 전통이 있어 왔다. 하나는 루터로부터 시작된 찬송가의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요한 칼빈의 시편가의 전통이 있다. 루터는 로마카톨릭이 갖고 있는 예전의식을 그대로 지킨데 반해서 칼빈은 이를 혹독히 비판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주장하였다. 종교 개혁 이후 개신교회는 이 두 가지 전통이 상당히 오랫동안 각각 발전해오다가 결국에는 두 전통이 통일되고 혼합되어 오늘의 개신교회는 이 두 가지 전통이 공존하게 된 것이다. cf. 최시원 “칼빈과 시편가의 전통” 및 브래트(1987. 2), p. 127.

62) *Ibid.*, p. 39.

63) *Ibid.*

64) John H. Bratt, *Loc. cit.*, p. 95.

④ 조화로서의 예배

칼빈 또는 칼빈주의자들의 예배의 원리는 언제나 공동체로서의 예배와 예배의식의 조화를 찾아야 할 것이다. 사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 증거로서의 설교와 성만찬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무척 애를 썼다. 칼빈은 생각하기를 성만찬은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물론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지만 또한 성만찬을 통해서 주 보는 것을 통해서 큰 도움을 입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다.⁶⁵⁾ 그래서 “듣는 말씀”(verbum audibile)과 “보는 말씀”(verbum visibile)은 상호 영향을 주며 이들은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칼빈은 스트라스버그에서 그리고 제네바에서 그의 교역 처음부터 끝까지 敎父들의 前例에 호소하면서 매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와 성찬식을 겸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실제로 스트라스버그에서 칼빈은 매월 한번 정도 밖에는 성찬식을 거행할 수 없었다. 그 후 제네바에서는 성찬식을 1년에 3회 또는 4회 밖에 할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기도와 찬송, 그리고 성만찬이 예배의 합당한 순서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다만 목회의 형편상 성찬의 회수가 줄었을 뿐이고 그것을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니었다.

結 論

우리는 위에서 칼빈주의적 입장에서의 예배의 원리와 특징들을 살펴 보았다. 결국 예배는 인간의 욕구나 편의에 의한 것도 아니며, 즐기기 위한 것도 아니며, 결국 신학적인 문제이며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禮拜神學(Theologia Liturgica)의 문제일 것이다. 개혁주의 예배 원리는 인간 중심의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강조함으로써 말씀을 통한 은혜의 체험을 하게 한다. 그것은 바로 말씀 중심의 예배이며,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 말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오신 원리가 강조될 것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총(sola gratia)을 바탕으로 해서 오직 말씀(sola scriptura)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in Christ) 오직 믿음으로(sola fide)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에게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65) *Institutes*, N, i, 1.66) *Institutes*, N, xviii, 46. 또한 *op. cit.*, “His Opus Magnum” p. 249.